

오피니언

테마칼럼

책과 세상

신재생에너지

문화상상력

도시와 인간



강 막 실

사라져가는 이 땅의 새

동이 트기 전 깜깜한 새벽인데도 “흘딱 빠구, 흘딱 빠구” 하는 검은 등뼈 꾀기 소리가 마을 숲에서 쉼 없이 들려온다.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씩씩한 구애의 소리이리라. 아니, 이미 탁란을 마치고 어미가 등지 주변 나뭇가지에 앉아 경계를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겠다.

벙어리뼈 꾀기 소리는 “붕붕붕붕, 붕붕, 붕붕……” 하는 경쾌한 랩 가락으로 이어진다. 빠꾸기 중에서 가장 세련된 모습의 아열대성 조류 밤색 날개빠꾸기는 그동안 제주도에서만 기막식 발견되었는데 최근 충남 서해안에 나타나 화제가 되었다. 그녀석의 울음소리는 또 어떤 소리일까, 궁금해진다.

좀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이렇게 소리로만 존재를 느끼게 되는 이네들과는 달리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새들도 많다. 갯벌이 있어 새들의 먹이가 풍부한 강화도에 사는지라 다른 곳에 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새까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다.

여름철 새인 왜가리가 이곳에서 텃새가 지는 이미 오래다. 이른 아침 강화해협의 해안도로를 따라 출근하다가 왜가리 몇 마리가 물 빠진 갯벌에서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는 듯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 곧바로 차를 세워놓고 황야의 무법자 같은 그네들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농도로 차를 물고 가다 자그마한 물웅덩이에서 목을 하고 있는 딱새와 마주칠 때도 시동을 끈 채 그 모습을 넋을 잊고 바라본 적이 있다. 몸 구석구석을 어찌나 아름다운 자태로 쟁쟁지 물만 없었다면 구애의 춤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아, 새들도 목욕할 때 뒷풀까지 한다는 걸 그때 알았다.

외포리 근처 한 무인도가 서식지인, 이제는 지구상에 5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저어새도 가끔 백로들 속에 섞여 이곳 지산리 물 찬 논까지 찾아오곤 한다. 백로들 속에서 저어새를 발견할 때면 숨이 몇을 정도로 반갑다. 잘 알려지지 않은 한 돛대 앞 갯벌에 서면 여러 종류의 도요새와 갈매기와, 왜가리와 물떼새들이 함께 모여 한가로이 먹이를 찾으며 들려주는 학창은 아름다운 나머지 낯설

어, 면 이국땅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하지만 출판사가 있는 과주 문발리 들녘에 겨울마다 찾아오던 재두루미 가족은 몇 년 전부터 찾아오지 않는다. 눈이었던 그 들녘을 가로질러 큰 도로가 생겼기 때문이다. 비단 재두루미뿐이겠는가.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저어새의 번식 척인 어떤 무인도도 영종도 근처의 온갖 시설 공사로 활약해져가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물론이고 끊임없이 크고 작은 공사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범증적 이 없는 이 땅, 언젠가는 온 국토가 시멘트로 뒤덮여버릴 것 같은 이 땅, 이곳에서 새들은 계속 사라져갈 것임이 분명하다.

해마다 사라져가는 이 땅의 새들은 관한 책이 다행히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힘입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대부분 수십 년에 걸쳐 나온 결실들이다. 삼십 년 동안의 기록을 담은 서제철의 ‘제주도의 새’리든가 역시 몇십 년 동안의 기록과 사진을 토대로 만든 김연수의 ‘사라져 가는 한국의 새를 찾아서’는 새에 관한 아주 귀한 책들이다.

특히 후자의 책은 새들의 짹짓기나 산란, 육아, 생명을 건 투쟁의 과정 등이 생

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탑조 당시의 현장성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숨 숨이며 새들의 비밀스런 모습을 훑쳐본 저자의 흥분을, 때로는 안타까움을, 독자 역시 고스란히 느끼게 된다.

인간이 예로부터 새들을 동경해온 깊은 무엇일까. 날 수 없는 애달픔에 대한 동경에서 일까, 혹은 경외감에서 일까. 아니면 끌당하는 데 없는 곳을 향한 인간의 원초적 그리움 때문일까. 그 끝을 새들은 알고 있는 듯해서 일까. 일주일만에 1만 1500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난 흑꼬리도요처럼, 새는 지치지 않고 날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의 화신이기는 아닐까.

앞의 책들은 말한다. 그 동경의 대상이 이제는 이 땅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바로 인간의 탑을 때문에. 우리들의 후손과 또 그 후손의 후손들도 지금 우리가 듣는 다양한 새들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수백 마리의 새떼가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사계절출판사 대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 고 칼 럼



이 원 재

소돔성의 사람들을 꾸짖던 ‘롯’처럼

그곳이 바로 지금의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 당시 소돔은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표현할 만큼 비유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평소 롯은 삼촌의 그늘서 항상 열등감과 부족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기회는 이때 생각하고 지체 없이 보기에 좋은 것을 택했던 것이다.

롯은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고 도시에 머물며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을 좋아했으며 소돔 사람들의 악에 대해 관대했고 정체성을 잃었으며 원칙이나 축복의 약속보다는 당장 있는 감각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대비가 없이 주변 상황에 쉽게 휘말려 버린 것.

그런가 하면 아브raham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삶의 근본 원리를 알고 충실히 따랐다.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

은 그만큼 내적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다. 인근 부족과 섞이지 않고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모리 족속 마브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다. 인근 부족과는 동맹관계로 좋은 관계를 가졌으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양육했다. 육성을 채우기보다는 명예를 택하였고 제사장에게 얻은 것의 십 분의 일을 아낌없이 바쳤다.

그렇다고 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못된 사람이 아니다. 특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만의 독특한 신앙이 있었다.

롯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았고 천사를 영접하였으며 가족들에게 자체 없이 위기를 증거 하였고 온갖 부와 권력과 생애의 모든 노력의 결실들이 그곳에 있었으나 한 가지

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이다. 소돔성의 사람들의 불법과 타락을 용납하지 않고 호되게 꾸짖었으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짐으로 늘 고통당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롯을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배려가 없고 비뚤어진 신앙관을 가졌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롯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가? 그는 변명이나 합리화 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너무 관용하게 변호하고 합리화 하려한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환경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고 회개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지 않는가.

근래 지진과 쓰나미의 재앙, 기상이변,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 일본뿐 아니다. 전 세계가 두려움에 있다. 변명이나 핑계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하자. 〈광주무등교회 담임목사〉

기 고



조 용 복

교훈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큰 희생

그해 12월 또다시 이전 미장면에서 둘류창고를 집어삼키고 8명의 사망자와 2명의 부상자를 낸 화재(火災)도 용접 불티었다. 지난 2009년 1월 17일 광주 총장로 한복판에서 건물이 무너져버린 화재 역시 용접 불티가 그 원인이었다. 2008년은 너무나 큰 재앙이 된다는 ‘작은 불티도 부주의하면 큰 재앙이 된다’는 학비산 교훈을 얻은 해였다.

이전 냉동창고 화재 이후 소방당국이 용접 또는 용접 작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소방 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 용접 불티에 의한 화재는 2008년에 전국 화재의 3.58%에 차지하던 것이 2010년에는 3.13%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광주광역시도 용접, 용접 작업 화재가 최근 5년 평균 1.47%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 화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가운데 20%로 많은 인명 피해를 냈다. 그

려나 화재 원인은 용접작업을 할 때 생기는 작은 불티였으니 그야말로 인재(人災)라 아

니할 수 없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이를 교훈 삼아 개정

된 소방기본법에 의거, 지난 5월 1일부터 용접·용접 작업장의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용접·용접 작업장의 용접 불티 및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용접작업 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작업장에는 소화기 비치 등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용접 불티는 화재의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화재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하지만 용접 작업장의 화재는 근본적으로 현장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라는 점에서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전 냉동창고 화재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유증기가 가득 쌓고 우레탄 등 가연물들이 쌓여 있어 불이 급속히 번졌다. 뿐만 아니라 독가스로 인한 인명 피해가 컸었다.

란히 떠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팔면 팔수록 적자다.

물론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와 상관관계가 높아 물가에 적지 않는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표방하는 공정사회에 부합하는 요금제도 개선으로 전기의 바른 소비와 정부의 대국민 이해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시행이 중요할 것 같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늦었지만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하니 조심스럽게 제도 시행에 기대감을 가져본다. 모든 국민의 많은 이해와 정부의 실천의지가 중요할 것 같다.

▲김미연·광주시 서구 농성동

전기요금 연동제, 합리적 에너지소비 계기로

2011년 7월부터 전기요금 연동제가 실시된다.

연료비 연동제는 협행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체계에 연료비 조정요금을 가감하는 제도이다.

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 소비자들이 다른 에너지원과의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현재 국내에서는 도시가 스·열·항공요금 등에 적용되고 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앞으로 전기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의 변동폭을 매월 반영하여 연료비의 변동폭이 3%를 넘을 경우만 적용된다.

다만, 연료비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더라도 최대 조정폭은 연료비 변동폭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를 하기 때문에, 만약 연료비가 10% 올라도 전기요금은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

자원부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현실상 전기 생산에 필요한 자원(석유·석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원 도입 가격 상승하면 한전에서는 그 부담을 고스

시 설

속도 내는 영산강 사업 장마철 대비책 있나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영산강 살리기 공사가 막바지 급파치를 내고 있다. 장마철을 앞두고 있는데다 정부가 4대강 공사를 서둘러 끝낸다는 목표 아래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리한 공사는 부실을 놓고 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광주지역 환경단체가 지적했듯 속도전을 끊임없이 하는 준설 등으로 인해 집중 호우시 제방 붕괴나 유실, 지진으로의 역류 등 홍수피해가 우려된다.

문제는 영산강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환경 변화를 가져와 제방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없다는 데 있다. 자연 상태에서 제방을 복구하면 되지만 인위적인 상황에서 공사현장에 대한 폭넓은 손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우려가 기우를 바리지만 ‘빨리빨리’ 공사로 인한 부실과 기본계획과 다른 시공 등을 서둘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장마철 영산강 살리기가 아닌 ‘죽이기’가 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물론 이러한 우려가 기우를 바리지만 ‘빨리빨리’ 공사로 인한 부실과 기본계획과 다른 시공 등을 서둘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장마철 영산강 살리기가 아닌 ‘죽이기’가 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물론 이러한 우려가 기우를 바리지만 ‘빨리빨리’ 공사로 인한 부실과 기본계획과 다른 시공 등을 서둘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장마철 영산강 살리기가 아닌 ‘죽이기’가 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지역재난 대응의 인접 시·도 확대를 바라보는 지역 건설업체의 시선도 굽지 않다. 지역 내 공사를 인접 지역 건설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면 결국 일부 지역업체에 대한 공사를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전남의 경우 인접한 광주·전북, 경남 지역 건설업체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건설사의 지나친 난립을 막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건설 선진화 방안 취지로는 바람직하다. 그렇다 해도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급격한 변화는 두 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 건설업이 지방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정부는 건설업을 선진화한다면 지방 경제에 따라 주관적 평가가 50~80% 비중을 차지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공사를 따내기 위한 로비가 성과를 부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기술능력이 부족

無 等 鼓

한 종소 건설사로서는 입찰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재난 대응의 인접 시·도 확대를 바라보는 지역 건설업체의 시선도 굽지 않다. 지역 내 공사를 인접 지역 건설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면 결국 일부 지역업체에 대한 공사를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전남의 경우 인접한 광주·전북, 경남 지역 건설업체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건설사의 지나친 난립을 막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건설 선진화 방안 취지로는 바람직하다. 그렇다 해도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급격한 변화는 두 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 건설업이 지방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정부는 건설업을 선진화한다면 지방 경제에 따라 주관적 평가가 50~80% 비중을 차지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공사를 따내기 위한 로비가 성과를 부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기술능력이 부족

한 종소 건설사로서는 입찰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재난 대응의 인접 시·도 확대를 바라보는 지역 건설업체의 시선도 굽지 않다. 지역 내 공사를 인접 지역 건설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면 결국 일부 지역업체에 대한 공사를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전남의 경우 인접한 광주·전북, 경남 지역 건설업체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건설사의 지나친 난립을 막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건설 선진화 방안 취지로는 바람직하다. 그렇다 해도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급격한 변화는 두 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 건설업이 지방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정부는 건설업을 선진화한다면 지방 경제에 따라 주관적 평가가 50~80% 비중을 차지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공사를 따내기 위한 로비가 성과를 부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